

한반도의 반도 - 드라이브스루 언택트 여행지

사연 많은 77번 국도따라 가면 '이야기 땅' 고흥엔 400개 설화



고흥 팔영산 너머 보이는 여수.



태안 안면도를 꿰뚫는 77번 국도.



여수 향일암 관음전.

1일2산을 했다. 붙어있는 산도 아니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에 뚝 떨어졌다. 금오산(323m)과 팔영산(609m)이다. 지난 2월 28일 77번 국도는 제 몸에 다리 4곳을 새로 걸쳤다. 내비게이션은 예전 120km 길 대신 85km짜리 새 길을 띄웠다. 반도에서 다른 반도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건넜다. 여수와 고흥은 순천·별교의 신세를 지지 않고, 가장 짧은 거리로 30분이면 통하는 사이가 됐다.

반도는 삼면의 바다에 둘러싸인 육지다. 현재에 묶일 것이냐, 나아갈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영화 '반도'는 역병으로 한반도가 격리된 상황을 그린다. 영화 속, 정석(강동원) 일행은 본 홍콩인들의 '반도 놀음 야나'라는 외침에는 역병에 무너진 국가와 국민의 치명상을 드러낸다. 영화가 관객 380만 명을 모은 뒤 스크린에서 내려갈 즈음, 현실의 역병은 다시 고개를 뺏뺏하게 들었다. '한반도의 반도'를 둘러봤다.

다른 도로와 섞인 구간 빼면 701km

77번 국도는 반도 대부분을 뚫는다. 우리나라 최장 도로다. 부산 중구에서 시작해 남서해안을 따라 1258km(2019년 기준)를 굽이친다. 국토관리청 도로현황에 따르면 '순수한' 77번 국도의 길이는 701km. 다른 도로와 섞인 부분이 557km라는 얘기다. 고성반도를 한 아른 안은 77번 국도는 북북서로 향하다 다시 구불구불 남행한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5곳 중 팔영대교가 2016년 12월 들어섰다. 화양·둔병·남도·적금대교가 올해 2월 개통했다. 김정신 여주시청 주무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하면서 방문객이 줄었지만, 오히려 드라이브와 섬 트레킹을 선호하는 언택트 관광지로 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여수에 사는 김지예(22)씨는 "예전엔 엄두도 못 냈지만, 오늘은 고흥에 마실 간다"며 화양대교로 향했다. 김씨를 만난 곳은 여수 화양면 장수리 자매마을. 원래 도로를 마을 앞 바다에 바짝 붙였고, 새 도로는 마을 뒤에 생겼다. 김종래(83) 할머니는 "중중 저렇게 들어와서 구경하고 간다"고 말했다. 자매마을은 77번 국도에 포위당했지만 차 소음은 크지 않았다. 한 발짝 물러서 보면 호박나무·소사나무 등이 할머니 등처럼 굽은 마을을 도톰하게 호위하고 있다. 방풍림이 방음림의 역할



까지 하고 있다.

'밤바다'는 여수 관광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다리 건너 만나는 고흥은 사뭇 다르다. 고흥의 팔영산 유영봉에서 만난 김영철(62·대구)씨 부부는 "차도 적고 사람도 뜸해 고즈넉하다"고 말했다. 송규석 고흥군청 주무관은 "새로 다리가 놓이면서 화려한 여수와는 다른 느낌을 찾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고흥을

풍광 좋은 1258km 77번 국도
부산서 해남·변산 거쳐 김포까지
우리 땅 대부분의 반도 뚫고 지나
여수·고흥 잇는 다리 4개 신설
변산·태안 소나무는 왕실서 관리
6·25 격전지 김포, 일부선 '반도'

찾는다"고 밝혔다. 고흥은 이야기의 땅이다. 이곳 출신 어우당 유몽인(1559-1629)은 어우야담을 지었다. 고흥에 전해지는 설화와 이야기는 400개가 넘는다. 도깨비 관련이 많다.

77번 국도는 고흥 반도 남쪽을 휘감아 돈 뒤 장흥·해남·화원반도로 이어진다. 400여 년 전, 조선의 전함 12척이 이 길 왼쪽의 바닷길을 따라 이동했다. 1597년 음력 7월 정유재란. 원군이 거제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에 궤멸당했다. 살아남은 전함(판옥선) 12척은 복직한 이순신 장군 회령포에서 건넌 울돌목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비비람처럼 나갔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미 죽은 적장 마다시(馬多時)를 바다에서 건져 촌참(寸斬·마디마디 자른) 뒤 내걸었다. 적들은 퇴각했다. 이순신의 전함은 곧바로 서해안을 따라 고군산군도까지 올라가 승을 골랐다.

77번 국도도 북상한다. 이순신이 해제반도의 신안에 머물렀을 때, 충남 아산현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스무 살에 죽은 셋째 아들 면(?)의 비보를 접했다. 그는 목 놓아 통곡했다(난중일기 1597년 10월 14일).

도로는 부안의 변산반도에 들른다. 『칠갑록(七甲錄)』에 따르면 1830년 7월 7일 부안에 있는 77세 노인 7명이 칠성암(七星庵)에 모였다. 이들은 "7일 동안 학리를 주고받으니, 이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고 했다. 190여 년 뒤 77번 국도가 그들 있던 곳을 스치고 지나가게 됨은 우연일까. 변산반도

의 그트머리 격포항은 예전 격포진(楛浦鎭)으로 부른 요충지였다. 근처에 유사시 임금의 거처인 행궁(行宮)이 있었다. 현재 행궁은 흔적도 없다. 격포진은 송정(松政·소나무 정적)을 맡았다. 고흥한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송정에는 벌목을 막는 금송(禁松)과 강원도·안면도 등에서 기르는 양송(養松)이 있다"고 말했다.

190년 전 부안 77세 모임 ... 77과 인연

77번 국도는 새만금방조제를 거쳐 태안반도 안면 송림까지 들어다닌다. 백학산(284m)도 소나무로 뒤덮여 있다. 솔잎은 솔 많고 결 단단한 스무 살 이 등병의 머리칼처럼 건강하다. 안면도 꽃지해변 남쪽에 '찰씩은어'가 있다. 여는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예전 남쪽에서 조운선이 쌀을 싣고 한강으로 향하다 이곳의 험한 바닷길을 넘지 못해 종종 좌초됐다. 쌀이 썩었다. 그래서 '찰씩은어'다.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태조부터 세조 때까지 60여 년간 이곳에서 선박 200여 척, 1200여 명, 쌀 1만 5800여 석의 피해를 적고 있다.

77번 국도인 자유로 건너편에 김포가 있다. 일부에서는 '김포반도'라고도 부른다. 전국지리교사모임 관계자는 "김포는 지리적으로는 반도로 볼 수는 없다"며 "한강·조강·염하(강화와 김포 사이의 바다) 등 '3면의 물'로 둘러싸여 있기에 형태상으로 반도로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곳에 '김포지구 전투'가 있었다. 국군은 병력을 급조해 6월 26일 부터 7월 3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시간을 벌었다. 김포지구 전투는 이후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임진강 건너, 철책선 너머 멀리 웅진반도다. 경기도 파주, 77번 국도는 개성까지 가기로 됐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반도는 다시 묻는다. 현재에 묶일 것이냐, 나아갈 것이냐.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77번국도와 동해 7번 국도 두 곳에 '명사십리' ... 김정은의 원산 사랑

77번 국도가 남서해안을 굽이친다면, 7번 국도는 동해안을 끼고 달린다. 한반도의 등골을 타는 도로다. 77번 국도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중구에서 시작한다. 함경북도 온성까지 1192km다. 남측 구간 끝인 강원 고성까지는 484km다.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을 거쳐 벨라루스까지 가는,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AH6)의 일부가 7번 국도에 있다. 7번 국도 시작점인 부산만 해도 반도가 여러 곳이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송·송도 등의 반도가 있다. 미니 반도다. 도로는 이후 경북 포항을 스쳐 간다. 929도로로 갈아타고 호미반도에 들어선다. 고산자 김정호는 이곳을 7번 찾아 한반도의 동쪽 끝이라고 확인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는 섬을 제외한 한반도의 '땅끝 마을'을 밝혔다. 서쪽으로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남쪽으로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다. 동쪽은 바로 호미반도에 있는 구룡포읍 석벽 2리다.

김정은 포항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호미반도의 원래 이름은 장기반도였는데, 2001년 1월에 이름을 바꿨다"며 "장기는 말의 갈기를 뜻한다. 일제가 1918년에 장기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말을 버리고 호랑이(호미·虎尾)를 택한 것이다. 이곳에 일본 강점기에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구룡포에는 적산가옥 거리가 조성돼 있다. 1930년대에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220여 가구, 1100명이나 살았다. 쇠

말뚝의 '용도'가 맞다면, 본인들이 살던 곳의 정기를 끊어 버린 셈이다. 다음 반도는 400km 넘게 달려야 한다. 강원도 원산의 갈마반도와 호도반도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이곳에 해안관광지구 만들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사랑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은의 출생지는 불확실하지만 원산 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진모 고흥회(1952-2004)는 '원산택'으로 불리기도 했다. 9월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 공사 중인 해안관광지구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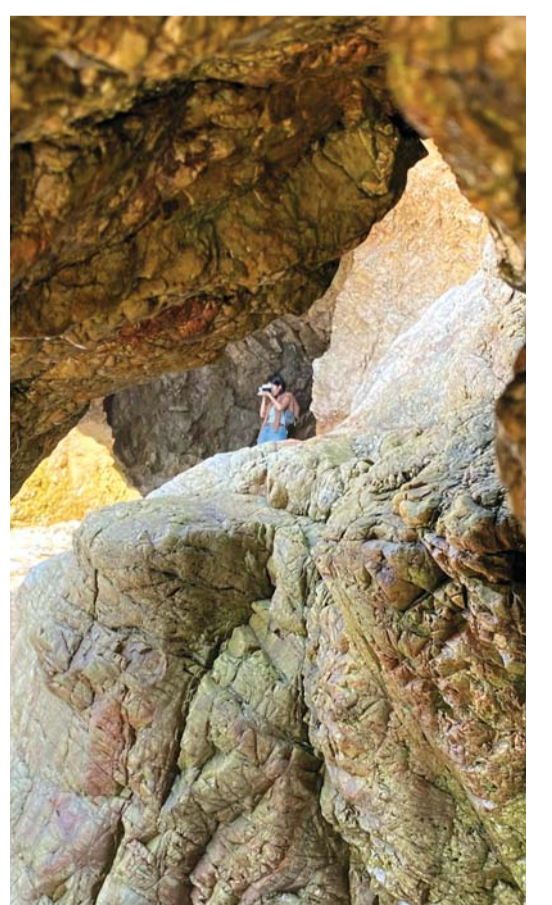
이곳의 명사십리가 유명하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77번 국도가 지나는 해남반도 전남

완도에도 명사십리가 있다. 은빛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의 울림소리가 10리(4km)까지 들린다고 해서 명사십리(鳴沙十里)다. 밟을 때 우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모래가 곱다고 해서 불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는 해남반도의 명사십리와 한 자가 다르다. 원래 '명사(鳴沙)'를 사용하다가 '명사(鳴沙)'로 바뀌었다고 한다. '모래 사(沙)·모래의 차이'에 대해 권상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각각 해안 모래와 육지 모래라는 미묘한 구별이 있지만 같은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의 명사십리는 본래 의미가 같았다는 것이다.

갈마·호도반도를 가려면 금강산을 거쳐야 한다. 서산대사(1520-1604)는 이 길을 지나며 읊었다. '금강산의 구름이 명사십리에 비 되어 내리고/해당화마저 지고 나니/길 위에는 우리 서너 명뿐.' 7번 국도의 남측 끝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그저 바라볼 뿐.



태안 태을암 뒤 바위에 새겨진 바둑판.



태안 파도리의 해식 동굴.

/김홍준 기자